



인도의 직업교육훈련정책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인도는 12억 인구나 IT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신흥개발도상국에 비해 문맹률이 높은 편이며,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도 낮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학생의 65%가 초등교육 5년을 마치지 못하였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국민의 질적 노동력 향상을 위해 정규 학교교육 지원에 힘쓰는 한편 고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교육훈련’을 고용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도 직업교육훈련은 노동·고용부 산하의 ‘고용-직업훈련 이사회(DGE&T)’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노동·고용부 장관이 이사회 의 위원장이 되고 2명의 공동 대표와 5명의 지역 공동 대표의 도움을 받는다. 인도 직업교육 훈련은 기술·기능 직업훈련제도와 수습생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외에 여성 전문교육과 전문가, 관리자를 위한 기술교육을 진행한다. 이 글에서는 인도 노동·고용부 발간 자료를 중심으로 인도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http://dget.gov.in/mes/index.htm>

■ 기술·기능 훈련제도

기술·기능 훈련제도는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양적·질적인 면에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

인도의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중앙정부 운영 기관과 지방정부 운영 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으로 지원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구성된다²⁾. 인도의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5,114여 개소로 인도 각 주에 퍼져 있으며, 여성만을 위한 12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이들 교육기관은 7만 3,000명의 직업교육생을 훈련할 수 있다.

타밀나두 주의 경우,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59개로 주 전역에 펼쳐 있다. 이 중 39개는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17개소는 기능교육을 담당한다. 여성만을 위한 12개 직업교육기관이 있고,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와 부족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각각 1 개소가 있다³⁾. 59개 공공 직업교육기관 중 3개소는 Rs.801.49 lakhs(약 19억 원)을 들여 2007년 8월에 개설되었다. 전체적으로 2만 1,224명의 교육생을 훈련할 수 있고, 2007년의 경우 교육생은 1만 5,321명이었다.

특성

- 대상은 8~12학년 이상(교육과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학교 교육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지정 카스트(SC)와 지정 부족(ST)에 대한 입학정원 할당은 각 주의 SC/ST 인구 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⁴⁾, 장애인과 여성에 각각 3%와 25%의 입학정원을 할당할 수 있고, 그 적용

2) 이 글에서는 주정부의 예시로 타밀나두(Tamil Nadu)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http://www.tn.gov.in/policynotes/pdf/labour.pdf>

3)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 카스트와 부족민을 위한 정부 직업교육기관이 각각 1개소 개설되었다. 각 센터에서는 3개 기술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에 대해서는 주정부의 자율에 맡긴다. 전체 입학정원 할당은 50% 이하로 한정한다.

- 모든 인도 공공 직업교육기관은 매월 8월에 시작된다.
- 교육기관은 6개월에서 3년으로 교육과정마다 다르다.
- 교육비는 무료이나 명목상 소액의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 직업교육기간 중 공공 교육기관 교육생은 아래와 같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카스트: 월 Rs.150⁵⁾, 지정 부족민: 월 Rs.175, 지정 집단: 월 Rs.140, 버마, 스리랑카, 베트남 망명인: 월 Rs.175, 부모 수입이 월 Rs.50 이하 / 년 Rs.16,100 이하인 훈련생을 전체 1/3에 한하여 지원한다)

직업교육훈련 내용

직업교육 과목과 내용은 ‘국립직업교육원(National Council for Vocation Training)’에서 정한다. 현재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107개 분야의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흥산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위해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70% 이상이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이론을 지도한다. 교육 과목과 내용은 교육생이 전 인도 기능시험(AITT)과 전 인도 기술대회에 참여하고, 인도 어디서나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신흥산업에서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해 공공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전기, 전자, 정보산업, 정비, 컴퓨터 하드웨어, 식품가공, 인쇄, 사진, 운수-자동차 정비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새로운 산업인 네트워크 기술, 정보 입력사, 엘리베이터 기술자, 자동화 기계, 컴퓨터 방직자수 과목들을 5개 공공 교육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다. 전체 Rs.2crores(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타밀나두 산업 발전 기구에 의해 배정되었다. 타밀나두에서는 수출 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보조기구가 방직·방직 기술 코스에 대한 신설과 유지에 대해 지원한다. 이 기구는 2007년에는 한 해에 Rs.111.28 lakhs(약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매년 7월에 인도 전역에서 산업별 테스트가 시행되고 그 결과는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에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부여된다.

4) 타밀나두의 경우 입학정원의 18%를 지정 카스트에, 1%를 지정 부족민에게 할당하고 있다.

5) Rs.100 = 2,400원.

모듈 직업교육 프로그램

청년 구직자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Rs.8crores(약 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5만 명의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 예정이다. 모듈 직업교육은 56개 정부 교육기관과 1개 기초 직업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격

- 1순위 : 고용지원관리공단(Employment Exchanges)에 등록되어 있고, 실업보조를 받는 자.
- 2순위 : 고용지원관리공단에 등록된 자.
- 3순위 :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뽑되, 사회적 할당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 5학년 이상 학교 교육을 받은 자.
- 40세 이하, 단 지정 카스트나 지정 부족민의 경우는 45세 이하.

교육시간은 주중 오후 5~8시 그리고 토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모듈에 따라 다르다. 직업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모듈 교육기간이 끝날 때, 직업교육기관 규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부여된다.

인도 정부는 '제10차 계획안'에 따라 직업교육기관을 국제적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500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100개소씩 5년에 걸쳐 개선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75 대 25로 부담하며, 국제개발기구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도 받는다. 타밀나두의 경우는 현재 16개 공공 교육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개선, 승격되었다.

기술학교(Industrial School)

타밀나두 주에는 987개의 기술학교가 있고, 9만 6,998명을 교육할 수 있다. 이 중 45개 학교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2007~2008년 경우 이들 교육기관에 Rs.1crore(약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60개의 장기 교육 과정과 60개의 단기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기술학교의 주요 목적은 도시 외 지역의 가난하고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과 극빈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입학 자격 : 8년 이상 학교 교육을 받은 자
- 직업교육 분야 : 요식업, 재봉,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미용 등.
- 교육 기간 : 45일~3년
-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7월에 있고, 합격자에 한하여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주어진다.

민간 기관과 연계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직업교육센터와 연계교육을 실시한다. 타밀나두 주의 경우 정부 인가 민간 직업교육센터는 605개로, 5만 8,880명의 교육생을 훈련시킬 수 있다. 교육생의 50%는 사회할당제도에 따라 소외계층으로 충원된다.

2008~2009년에 Rs.2.5crores(약 6억 원)의 예산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기관 향상 및 개선을 위해 12개 공공 직업교육기관에 지원되며, 이 프로그램은 2008년 8월부터 시작된다.

■ 수습생 제도

이 제도는 지원자의 현장 실습과 기능성 향상이 목적이다. 교육기관에서는 수습생과 실습 산업체를 연결해 주며 수습생에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지도한다. 수습 교육기간은 6개월에서 4년으로 산업별로 다르다. 현재 107개 산업 분야에서 수습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만 개 사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⁶⁾. 타밀나두 주의 경우, 11개 정부 연계 직업교육센터와 3개 정부 직업교육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2,183 산업체 분야 13만 919명의 수습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6) http://pib.nic.in/release/rel_print_page1.asp?relid=27739

수습생 배치

1961년 제정된 수습생 법(Apprentice Act)에 따라, 주정부 소속 고문은 지정된 직업교육 분야의 산업체에 일정수의 수습생을 배치할 수 있다. 수습생 교육은 각 산업체의 고용주에게 위임된다. 산업체 현장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 분야의 기초교육은 기초교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습생 수당 및 자격증

수습 기간 동안 수습생은 교육수준, 경력, 수습 기간에 따라 월 Rs.1090-Rs.1970⁷⁾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4~10월 사이에 정부 주관 기술·기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결과는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합격자에게는 정부 승인 자격증이 부여된다. 매년 1만 3,000명에 달하는 수습생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 직업교육 훈련교사 교육 및 진흥책

직업교육 교사 교육

직업교육 수준의 향상과 최신 기술의 전수를 위해 직업훈련 교사는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기관에 등록되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 타밀나두 주의 경우, 매년 25명의 직업훈련 교사들이 중앙 직업교육기관 및 전문 직업교육기관에 등록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연계된 사립 직업교육기관 교사들도 2007년 12월에 2주 동안 정부 직업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에는 시청각 교수법과 수업 관리법이 포함되었으며, 교육의 방향은 정확한 기술전달을 위한 교수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7) Rs.1000=24,000원

기능·기술 대회와 포상

인도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14개 산업 분야에서 기능·기술 대회를 개최하며, 각 부문의 우승자에게는 Rs.10,000(약 24만원)의 상금과 인도 정부에서 수여하는 상장이 수여된다. 타밀나두 주정부에서는 18개 산업 분야에서 기술·기능 대회가 개최되며 각 분야 우승자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된다. 라다크리쉬난(Radhakrishnan) 박사상은 최고의 교사에게 주는 상으로, 매해 교사 10명과 교장 2명에게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된다.

■ 해외파견인력 교육제도

해외파견인력에 대해 일부 주정부가 해외인력 파견을 위해 언어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타밀나두의 경우, 해외인력 파견 공기업에서 해외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해외파견인력공사(Overseas Manpower Corporation Limited)는 타밀나두 주정부 소유로 1978년 11월 회사법에 따라 세워졌고, 1984년에 이민법에 따라 해외인력공사로 등록되었다. 인도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이 공사의 해외인력 파견을 승인해 왔다. 본 공사의 주 목적은 인도 구직자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05~2006년 이 공사의 순이익은 Rs.2.71 lakhs(약 655만원)였으며, 2006~2007 회계 년의 순 이익은 RS.22. 94 lakhs(약 5547만원)으로 급속히 성장하였고,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 5월 1일~2008년 3월 31일 사이 해외 취업을 위해 이 공사에 등록한 구직자는 1만 6,771명이었다. 이 공사 설립 이후 4만 591명의 지원자가 이 회사에 등록하였다. 2006년 5월 1일~2008년 3월 31일 사이에 367명의 지원자가 일자리를 배정받았고, 현재 660명이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74명의 기술인력이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얻었다. 캐나다 취업 희망자는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디젤, 석유화학, 정유 산업 등의 선도 산업에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이 회사는 영어 말하기, 기술산업 분야의 실습과 취업 면접방법을 교육하며, 캐나다 이민자 취업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재교육 프로그램(Orientation cum training programme)

2006-2007년에 해외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Rs.1.53crore(약 3억 7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2008년 3월 31일까지 8,459명의 기술인력이 직업교육 훈련원에서 재교육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이민 희망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학급당 15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20개 산업 분야에 대해 28개 직업교육 훈련원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근로자의 문제를 파악, 감독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주정부 산하의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해외 거주 타밀인을 셀(cell) 단위로 조직하여 관리하고 있다.

■ 맺음말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인도의 직업교육은 내용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인도의 직업교육정책은 기술·기능인 교육훈련과 수습생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특정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직업교육은 인도의 낮은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최근에 시작된 모듈 기술교육의 경우 정규교육 5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른 직업기술교육 과정도 분야별로 다르지만 정규교육 8년 이상을 받은 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정원제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을 직업교육 정원수의 최대 50%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직업교육은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향하며, 해외 송출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고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직업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기능 교육과 더불어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일부 주의 경우 해외 송출인력에 대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